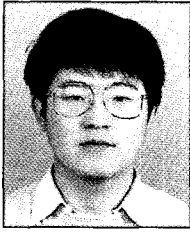


## Periodontic-Prosthodontic Treatment

## 과잉동요치아의 치주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치주 보철



이 승 원

1985 :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1993 : 고덴브르크대 치주학교실 전공의 수료

1995 : 고덴브르크대 치주학교실 CDS

현 재 : 연세대학교 치주학교실 조교수

치주 치료후 동요도가 있거나 와해된 치열(dentition)을 수복하기 위해 cross-arch design의 fixed partial denture (FPD) 사용에 관한 타당성이 문헌에서 장기간의 조사결과(Yi et al 1995)에 의해 증명되었다. 지대치들의 분포가 힘을 분산하기에 양호하다면, 치주질환의 재발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진단 및 치료로 구성된 주기적인 유지치료를 통하여 치주지지 조직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치아들도 장기간 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악에 걸친 FPD를 지지하는 지대치로 사용될 수 있다. 장기간동안 특별한 치주 조직의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cantilever로 된 FPD와 지대치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는 FPD는 통계적 유의성도 없다. 문헌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cross-arch design FPD의 성공은 치주조직의 물리적인 양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framework의 파절, 치근 파절과 같은 생역학적 실패를 방지하는 데에 달려 있다.

수십년 동안 저작근과 TMJ뿐만 아니라 몇 가지 특별한 occlusal guideline이 extensive FPD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요하게 생각되었지만, 과학적인 연구 방법에 의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매우 복잡한 교합 기록과 교합기가 extensive FPD를 제작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며, 단순한 교합 형태도 또한 기능적인 면에서나 생리적인 면에서 만족스러운 임상적 결과를 제공한다. cantilever extension상의 교합간섭을 교합 조절을 통해 제거하면, cantilever design 자체는 금속 구조물을 적절한 크기와 일체성 구조, 세심한 가공과정으로 제작한다면 extensive FPD 성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extensive FPD에 심미적, 위생적, 사회심리적 그리고 기능적으로 만족스러운 반응을 나타내었다. 심하게 감소된 치주조직에 의해 지지되는 FPD를 한 일부 환자들은 단단하게 씹어야 하는 음식에 대해 보호성 반응(feedback protection response)을 보이지만, 가철성 보철물보다 고정성 보철물을 선호하였다. 단축 치궁(short dental arch) 환자들도 대부분 잘 받아들였다.

따라서 cross-arch design의 FPD는 치주질환에 이환된 치열을 장기적으로 수복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즉 보철물의 고정기능으로 잔존 치주를 보호하고 잔존치들을 안정화시킨다. 주기적인 관리가 수행되고 교합력의 분산, framework의 적절한 두께(dimensioning), 유지력 증강을 위한 지대치 삭제 디자인(retention), 교합 패턴 디자인(occlusal design)과 같은 생역학적 요소들을 FPD제작시 고려하면 FPD로 수복하는 것은 환자의 구강 기능과 외적 모습을 향상시킬 수 있다.

보철 수복의 선택은 치주조직의 건강, 치아수, 악골에서 치아들의 분포, 교합관계, 심미적 고려에 의한다. 치주질환에 이환된 치열의 수복은 광범위하고 비용이 많이 들므로 cross-arch FPD로 치료를 결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치주질환에 이환된 치열에서 적절한 보철치료 선택과 관련된 임상적 결정은 임상 경험, 타당한 연구조사, 기대되는 결과에 대한 환자들의 선호도로부터

정보의 통합을 포함하는 다요소적 과정이다. 이러한 치료의 이점은 지대치 수, 치궁 (dental arch) 내에서의 그들의 위치에 크게 영향받는다(Frolich & Korber, 1977). Hedegard(1979)는 가철성과 고정성 보철물 선택시 다양한 치조골 높이와 치태 수준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치주질환에 이환된 치열의 수복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관한 필요한 정보는 많지 않지만, 성공적인 치료를 위하여 경제성, 각 개인의 협조도, 치료 요구도를 각 개인마다 잘 파악해야 한다. 환자에게 가장 유리한 치료를 선택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치주질환에 이환된 치열을 가장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치료 선택을 하도록 이끄는 임상적인 결정 과정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